

# 서구 불법주정차 알림서비스 실효성 의문

### 잡은 시스템 오류로 문자 발송 제대로 안돼 서구청 “업체 장비 보강해 주민 불편 최소화”

광주 서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사전예고제가 문자알림 서비스의 오류로 주민들의 불편을 사고 있다. 특히,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에 정차된 차량의 소유주에게 문자 발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스티커를 발부하되거나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는 사례가 잦아 실효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14일 광주 서구청에 따르면 불법주정차 문자알림 서비스에는 현재 9만 3,070여명이 가입했다. 서구청은 서비스 가입자들에게 지난

3년 간 총 39만 4,250여건의 문자발송 서비스를 제공했다. 불법주정차 단속이전에 미리 휴대폰 문자로 단속사실을 고지,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15년 5월에 광주 지자체중 서구가 최초로 실시됐다. 서구 전역의 고정형 및 이동형 CCTV에 의한 단속을 알려주는 문자알림 서비스는 처음 실시 될 때만해도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평균 1주에 2-3번씩 문자가 발송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하면서 서구청의 문자서비스만 믿고 있던 차량소유자들이 잇따라 범칙금을 부과받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 문자알림서비스가 잡은 오류를 일으키면서 범칙금을 부과받은 시민들의 민원이 구청 교통과에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모씨(34)는 “서구 불법주정차 문자알림 서비스에 가입했지만 최근 어떤 알림문자도 받지 못하고 서구 금호동한 이면도로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돼 3만 2,00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만 받았다”며 “서구청의 문자알림서비스만 믿고 자동차를 이면도로에 주차했다가 범칙금을 물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

했다. 이어 “누구는 문자를 받고, 누구는 문자를 받지 못하면 그 어떤 주민이 구청이 하는 일을 신뢰하겠나”라며 “문자알림서비스를 해준다고 안심시켜놓고 범칙금을 부과한 것이나 다름없는 처사”라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서구청 교통과는 문자알림 서비스에 가입시 유의사항으로 문자발송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시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문자발송 서비스는 말 그대로 주민을 위한 서비스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피하게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면도로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서

비스다”며 “벌금 부과를 피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닌 만큼 문자가 발송되지 않았다고 해도 범칙금은 납부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가입할 때 시스템 오류나 이동통신사 사정으로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통행중인 차량과 오인해 문자 발송이 안될 수도 있다는 유의사항을 적시했다”면서 “서비스를 위탁받은 업체의 장비보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주민들이 불편일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불법주정차 문자알림 서비스는 서구청 홈페이지(<http://www.seogu.gwangju.kr/index.9is>), 혹은 각 동 주민센터나 구청 교통과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김종찬 기자

의료사각지대 외국인근로자  
전남대병원 무료건강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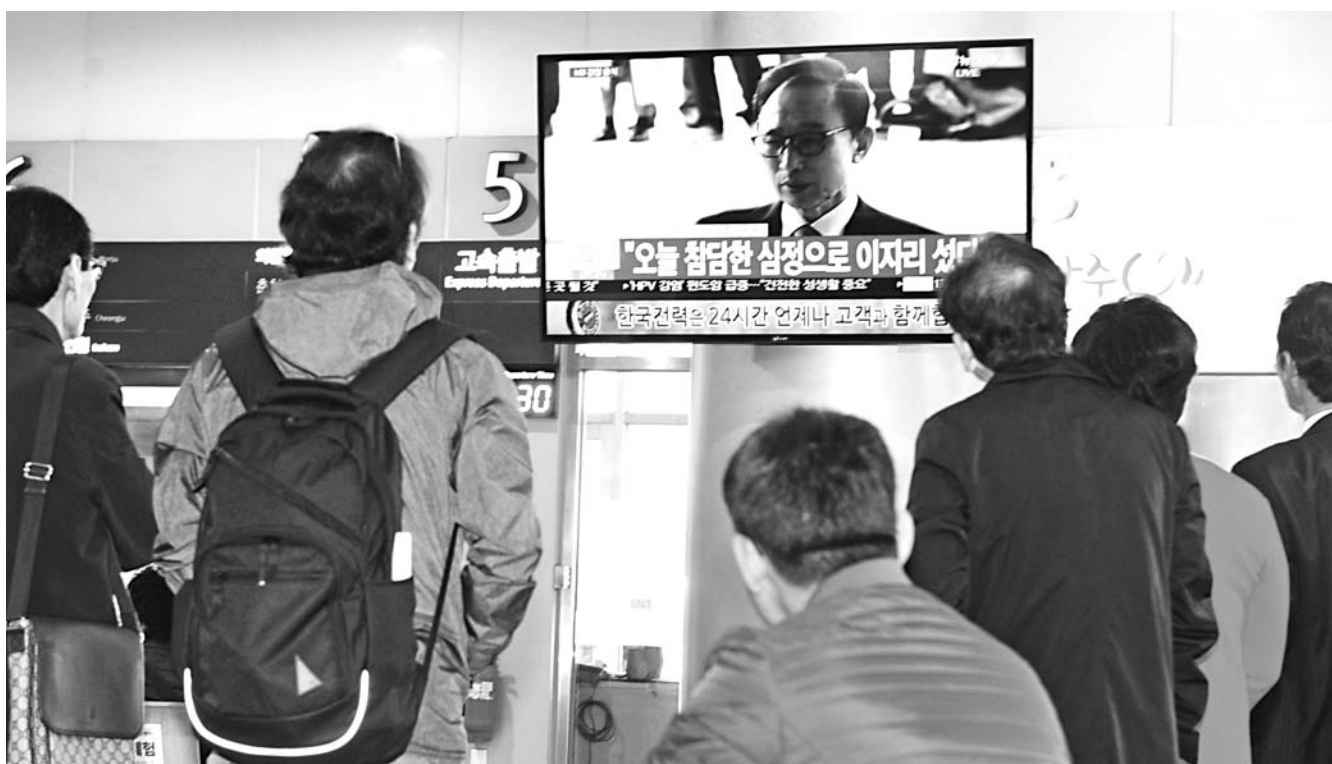
전남대병원(병원장 이상음)이 의료사각지대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의료서비스를 재개한다. 전남대병원은 14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정상적인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광주·전남지역 외국인근로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광주주주민건강센터에서 매달 1회씩 무료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근로자 건강검진은 2012년 12월부터 올해 6년째 이어지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원내 사랑나눔의료봉사단 중 의사(3명)·간호사(2명)·행정(2명) 등 총 7명을 선발, 순환기내과·흉부외과·감염내과 등 3개과의 진료를 펼친다. 건강검진은 주로 혈압·혈당 체크, X-ray검사, 소변검사, 건강 상담 등으로 이뤄지며, 이 외에 소집단 교육·소외계층 무료진료 사업 안내·기술지원 활동 등도 진행된다. 건강검진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매달 둘째 주 목요일(오후 6시부터 2시간) 총 10회 실시될 예정이며, 이날 진료일은 시설공사 관계로 아직 미정이다. 한편 전남대병원은 지금까지 건강검진에 총 250여명의 직원이 참여, 혈압·혈당검사, 소변검사, X-ray 촬영·체지방·B형 항체검사 등 총 3,000여건의 검사를 시행했다. /김용현 기자

# 조선대 교직원 내부망 게시판 일부 접근 제한

### 구성원 “소통 차단” vs 대학 “다른 게시판 활성화”

조선대가 교직원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 공간인 ‘내부 포털시스템’의 일부 게시판 접근을 제한하기로 해 구성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한 대학은 “성격에 맞는 홈페이지 게시판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구성원 간 의사소통 차단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14일 조선대에 따르면 대학 측은 학교 직원들이 이용하는 포털시스템의 게시판 운영 방식을 바꾸기로 하고 부총장 이룸으로 각 부서에 ‘포털시스템 게시판 운영 개선 안내’ 공문을 보냈다. 대학 측은 게시판 운영방식 변경 이유에 대해 “일부 게시판의 경우 혼용해 사용하고 있고, 추측성 내용이나 인신공격성 표현으로 대학과 해당 교직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조선대 홈페이지에는 공지사항, 정책알림, 학교에 바란다, 자유토론포방, 경조사 알림, 교직원 알림마당 등 6개의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대학 구성원들은 대학의 주요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개진을 대부분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된 ‘교직원 알림마당’을 이용했다. /황애란 기자

교직원 알림마당을 제외한 다른 게시판은 접근이 번거롭고, 눈에 띄지 않으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은 이번 개선안에서 ‘교직원 알림마당’의 게시 권한을 행정부와 법인 사무처로 제한했다. 게시 내용도 대학 내 행정부서의 공식적인 정보와 행사, 홍보 사항 등만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학내 문제에 대한 다양한 공론화의 장이었던 ‘교직원 알림마당’의 접근이 제한되자 일부 구성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 교직원은 “그동안 총장과 보직자가 수없이 바뀌어도 이 같은 조치가 없었는데 대학본부가 구성원과 소통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조선대는 이 같은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에도 오는 16일부터 ‘포털시스템 게시판 운영 개선안’을 강행할 방침이다. 조선대 관계자는 “그동안 개인 의견이나 인사 불만 등을 무분별하게 올리는 등 부작용이 많아 게시판 관리와 성격에 맞는 게시판 활성화를 위해 개선안을 추진하게 됐다”며 “대학의 주요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개진은 ‘자유토론포방’을 이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황애란 기자



‘이명박 검찰 출석 시민 관심’ 14일 오전 광주 버스터미널에서 시민들이 발길을 멈추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 및 횡령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하는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 ‘광주 S 아파트 경비원 수당’ 관련 정정보도

지난달 21일자 본보에 게재된 ‘북구 S아파트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 보도’에서 용역업체가 경비원의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지만 D용역업체에 확인한 결과 2011년 2,714만 1,184원, 2012년 2,819만 4,528원, 2013년 2,991만 8,240원, 2014년 3,207만 2,832원을 매월 급여

에 포함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했다는 보도는 신규입사자의 경우이며, 기존 근무자들은 아파트 여건에 맞춰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매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비원 감축 부분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관리비 절감방안 사안으로 의결을 통해 결정한 사항으로 D용역업체는 입찰을 통해 계약했기 때문에 무관함을 밝혀드립니다. 양해영씨가 살고 있는 비상대책위원장도 아파트 경비원 임금 등과 관련된 직책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종찬 기자

## “왜 쳐다봐” 주목질

○...길거리 도로개를 지나던 중 기분나쁘게 쳐다보다며 20대 두명에게 주먹을 날린 30대 취객이 경찰서 행. ○...1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최 모씨(34)는 지난 14일 새벽 5시께 술에 취한 채 서구 치평동 한 편의점 앞 길거리를 지나던 중 이 모씨(20)와 김 모씨(20)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다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종아리를 차는 등 폭행한 것. ○...이를 조사하던 경찰은 “새벽녘에 술에 취했으면 사탕이나 사들고 집이나 들어갈 것이지만 시비를 걸어 사람을 두들겨 패면 되겠느냐”며 혀를 끌ꭌ다. /김종찬 기자

### 영광주택매매(급매)

전원주택 (영광읍) 광주에서 30분!!  
즉시입주 가능 (최근리모델링 전체 완료)  
텃밭, 정원, 창고, 차량진입가능

토지 151평 /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

시세가 1억2천  
매매가 9천4백

주인직매 010-6670-9800

### 신축원룸매매 원룸전문

- 월곡동 신축건물 (최고급)  
(월곡시장 2분, 고려인마을 1분)
- 총 4층건물  
(원룸 12개, 투룸2개)
- 월수익 550만 예상

▶ 매가 8억 5천만

- ① 월곡동·산정공원 바로앞 (코너) 주인집거주  
▶ 매가 9억 5천만
- ② 전대정문 2분 (원, 투룸 18개) 월수익 800만  
▶ 매가 13억 5천만

010-7384-7800 010-6670-9800

### 법률경매 (대신경매)

- 1) 담양군 삼다리 (무인텔)  
토 3,319평 건 750평  
객실 32개 (월수익 4,500만 예상)  
▶ 감평가 37억 → 최저가 17억
- 2) 화순 도곡면 (호텔)  
토 617평 2,829평  
▶ 감평가 26억 → 최저가 7억5천
- 3) 화순 도곡면 (무인텔)  
토 3,289평 건 3,278평  
객실 32개 (월수익 5,000만 예상)  
▶ 감평가 39억 → 최저가 13억8천
- 4) 광산구 장덕동 (3층 근린주택)  
1층(상가) 2층-3층 (아파트형 빌라·6개)  
감평가 7억2천 → 최저가 5억
- 5) 남구 노대동(상가건물)어린이집  
감평가 4억8천7백 → 최저가 3억4천1백
- 6) 광산구 수원동 (1층 상가)  
감평가 9억6천 → 최저가 6억7천
- 7) 남구 진월동 (5층 상가원룸)  
감평가 7억5천 → 최저가 7억5천
- 8) 광산구 신창동 (원룸빌딩)  
감평가 3억8천 → 최저가 3억8천
- 9) 남구 진월동 (5층상가빌딩)  
감평가 18억 → 최저가 18억
- 10) 동구 충장로 (3층상가빌딩)  
감평가 4억6천 → 최저가 4억6천
- 11) 광산구 수원지구 (주차빌딩 1층)  
감평가 12억7천 → 최저가 7억1천

APT·주택·공장·토지(기타)

- ① 서구 치평동 금호타운 아파트 (31평)  
감정 2억2천4백 → 최저 1억5천6백
- ② 서구 내방동 내방주공아파트 (24평)  
감정 1억5천3백 → 최저 1억7백
- ③ 남구 주월동 (무등파크) 25평  
감정 1억4천 → 최저 9천8백만
- ④ 서구 치평동 금호대우아파트(24평)  
감정 1억8천 → 최저 1억2천6백
- ⑤ 광산구 소촌동 스위트빌리 (34평)  
감정 1억8천 → 최저 1억 2천6백
- ⑥ 광산구 용동 (공장) 토 500평 건 445평  
감정 9억7천 → 최저 6억7천
- ⑦ 함평군 신광면 (공장)  
감정 26억4천 → 최저 7억5천7백
- ⑧ 광산구 삼계동 (공장)  
감정 6억 → 최저 4억2천
- ⑨ 목포시 산정동 (노유자시설)  
감정 16억8천2백 → 최저 9억4천
- ⑩ 담양군 금성면 (임야 5.730평)  
감정 9천 → 최저 5천

010-6670-9800 062) 382-5500

### 경매교육 (3월초 개강)

경매로 이제부터 돈 많이 버세요~

광주최초  
(입찰부터 ~ 건축, 개발, 리모델링, 매매까지)  
(원스톱 가능)

☆ 경매 무료교육 ☆

- ① 기초반 → 경매기초 + 기본실전
- ② 실전투자반 → 기초+실전-매매까지

경매 가족을 모십니다.

- 1) 경매 배우면서 근무하실분
- 2) 경매 컨설팅하면서 수익내실분

평생회원 → 책상, 컴퓨터, 교육(무료제공)

010-6670-9800 062) 382-5500